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들 V. 보호를 간과한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1. 시대가 악함

[에베소서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태복음 24:37-39]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6:5-7]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시대의 악함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악한 마귀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통로가 되는 악한 사람(악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6:11-12]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 보니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전쟁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즉, 악한 영 마귀의 영향력과 악인의 기세가 실제로 믿는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고통이 있음을 말한다.

2. 성도들의 자세 (싸움)

이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또한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에베소서 6: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와같은 악한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대안은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기-새번역) 를 입는 것이다.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군사가 싸움에 나가기 위해 입는 전투옷(갑옷)이다. 군사가 싸움을 한다는 것은 목숨이 담보 되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질 때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싸움에 필요한 두 가지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첫 째는 방어용 무기이고, 둘째는 공격용 무기이다. 사실 싸움에 있어서 방어와 공격이 따로 없다. 둘 다 필요하다. 방어가 공격이고, 공격이 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 방어의 필요

방어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호'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에베소서 6:14-17]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16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 **진리의 허리띠** : 허리를 보호 / 정의의 가슴막이 (흉배) - 가슴을 보호

* **믿음의 방패** :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보호 (전신보호)

* **구원의 투구** : 머리를 보호

성경은 성도들의 영적싸움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통해 '보호'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말씀의 검으로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보호'가 없는 공격은 데미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공격하지만, 악한 영과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마귀의 정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자로 표현되어 있다.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싸우기 직전의 성난 맹수처럼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난 사자 앞에서 성도들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어떤 누구도 자고하면 안 된다.

(2)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방어의 중요성

[마태복음 6:13]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날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 그 중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다.

왜 이 내용을 기도하라고 말씀 하셨는가? 예수님 또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때가 악함을 아셨기 때문이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보호'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보호기도'가 있어야 한다.

(3) 보호기도 - 영적인 영역

보호하는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행위이다. 말씀은 이성과 지성, 이해에 유익과 도움을 주어서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러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영적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 안에서 '보호'를 가르쳐 주셨다.

[에베소서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의 영적전쟁을 언급한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를 언급한 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강조한다. 보호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주목할 단어가 '항상'이다. 보호기도는 공격기도와 달리 날마다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 가정을 위한 보호기도 : 성도들을 위한 보호기도 - 연약한 자, 아이들, 고난과 고통(정신,육체) 기도를 꼭 하라.
- * 일터를 위한 보호기도 : 사역지를 위한 보호기도 - 일터를 위한 보호기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원 서로를 위한 보호기도가 중요함을 인식하자.

(4) 보호기도 - 생각의 영역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전신갑주에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언급한다.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특히 생각과 감정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악인의 말 하나가 칼이 되어 가슴과 생각에 파고든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며, 이와 같은 생각은 뼈를 삭게 한다. 내가 아무리 주의하여 방어 운전을 해도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일으키는 차량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ㄱ)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

혼자 있을 때 특히 더 중요하다.

ㄴ) 만남에 대한 분별이 필요

분별을 가진 만남이 필요하다.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명심하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유유상종)

ㄷ)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일을 주의하라.

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번 내 뱀은 말은 담을 수 없다. 특히 분별을 주의하라.

ㄹ) 긍정적인 영향이 생각과 감정에 있어야 한다.

은총적 사고를 명심하라. 결국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5) 도움을 요청하라.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보호되는 것이다. 기도를 요청하고, 어떤 일이 있다면 실재적 의견과 자문을 구하라. 바로 그 순간, 내가 문제 속에서 문제 바깥으로 나아가 호흡을 하는 순간이 된다. (문제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득이 크다)

(6) 평상시가 중요하다

사건이 일어난 때도 중요하지만, 보호기도는 평상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담이 에덴을 경작했던 것처럼 평상시 내 영혼육의 상태가 건강하도록 경작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정상에서 어긋난 순간부터 시작된다. 모든 경작은 평상시가 중요하다. 꾸준히 해야한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보호이며, 가장 강력한 공격 태세이다.

- ㄱ)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작하라. (기도와 말씀)
- ㄴ) 보고 듣는 것을 경작하라. (보호의 삶, 창의적 사고, 긍정적 사고 등)
- ㄷ)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경작하라.
- ㄹ) 가정을 경작하라.
- ㅁ) 일터를 경작하라.

3. 하나님 나라의 속성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NIV)

로마서에 보니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언급되어 있다. 왜 언급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날마다 내 삶에 있게 하라.

* 의 - 불의에 대한 / * 평화 - 고통에 대한 / * 기쁨 - 질병에 대한